

의상에 나타난 Perfect Gentlemen의 이미지 연구 -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

李宜貞·楊淑喜*

서일대학 의상과,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Image of Perfect Gentlemen in Fashion

Eui-Jung Lee and Sook-Hi Yang*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Seoil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University*

Abstract

Black froak coat, white shirts, top hat and cane has been the symbol of gentlemen in 19th and early of 20th century. The pattern invented by Savile Row in London prevailed whole England. Such a pattern has been the standard form for two hundred years all over the word, although it was replaced with a functionalism which developed in Italy and America at the end of 20th century. The clothes of gentlemen was developed by several factors; English people respect a tradition. The clothes was practical, since the weather in England was bad. The success of Industrial Revolution made England wealthy.

Various special clothes in sports, for example, riding, cricket, golf and tennis also contribute the modern gentlemen clothes with advanced tailoring technique.

The change of gentlemanship with social environment, from Regency dandy, Romantic gentlemen to Muscular Christianity, was studied. Idial gentlemanship and development its clothes which is now the standard of modern men's wear also studied.

Key words : English gentlemen, Romanticism, muscular christianity, Regency dandy, Health cloth.

I. 서론

Black froak coat, 뽀뽀하게 풀떡인 흰 shirts, Top hat 그리고 cane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젠틀맨의 대명사가 되어 왔으며, 런던의 Savile Row가 정해 놓은 남성복의 규칙들은 마치 로마 교황의 칙서와도 같은 위력을 갖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이태리와 아메리칸 기능주의 (American Functionalism)에 추격당 하긴 했어도 스타일 메이커로서, 그리고 취향의 권위자로서 잉글리쉬 젠틀맨의 의상은 약 200년간 전 세계 남성복의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그 이유는 전

통을 사랑하는 영국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동시에 쌀쌀한 영국 날씨로 인해 모든 의상들이 외관보다는 실용적이어야 했으며 또한,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따라서 거추장스런 의상이 아닌 비즈니스 세계에 적합한 의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우기 승마, cricket, golf, tennis 등 각종 스포츠의 유행으로 인해 기능적이고 편리한 의상을 추구하게 되었다. 거기에 최고의 테일러링 기술이 어울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egency Dandy와 Romantic Gentlemen 그리고 Muscular Christianity에 이르기까지 19세기 동안의 시대상황과 젠틀맨십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

상적인 남성상과 전플랜의 복장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여 현대 신사복의 표준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II. 본 론

1. 비더마이어와 리젠시 댄디 (Biedermeier and Regency Dandy)

1) '보우'와 도르세 ('Beau' and d'Orsay)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잠시간의 '민주적이고', '자연스런' 패션 경향이 지나가자 곧 다시 패션은 장식적이고 화려해졌으며 과장되고 부자연스런 형태로 되 돌아 갔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1820년대 이르러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위 'Biedermeier' 시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독일에서 유행하던 정교한 문체상의 기교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이 시기의 남성 패션은 클래식 형태를 고수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가미되었다. 즉 남녀 공히 레이스드 콜셋을 했고 형태상의 큰 변화는 없으나 과거보다 단순해졌으며, 직물의 우수성을 중요시 하였고 재단상태가 가장 중요한 패션요소가 되었다. 이 무렵부터 오랜 패션 테마에 약간의 새로운 변화를 가미시킨 '댄디'가 출현했다. 댄디는 영국사의 극적인 사건인 왕정복고 (English Restoration)시기, 즉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이미 출현했으며 일반적으로 톱 (fop)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성장을 하고는 위트있는 재담과 얇은 철학적 주제 등의 지적인 토론을 하면서 소일하던 부류들로서 George 'Beau' Brummell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댄디란 말은 찬사, 비평, 심지어 냉소라는 다양한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생성된 단어이며 따라서 댄디즘의 확산은 양식의 불확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브럼멜은 댄디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만인에게 인정되어 왔으며, Lord Byron은 브럼멜을 나폴레옹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의 외모는 현대 남성복의 표명이 되었으며 그에게 있어 의복의 재단과 맞춤새 즉, 테일러링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의복의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브럼멜은 남성복에 대한 최고의 기준을 세워 놓았다. 브럼멜의 의상 아이디어는 섭정시대 남성복을 지배하다시피 했고 그 후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 남성들의 포멀 의상은 브럼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Thomas Carlyle은 'Sartor Resartus' (1836)라는 의상철학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의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비롯된다고 믿는 남성들을 질책하면서, '댄디란 옷을 잘 차려입는 남자이고 옷은 그의 상표이며 그의 지위와 존재도 의상에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Carlyle과 같은 당대 저명한 철학자가 의상을 주제로 철학적 고찰을 시작한 점은 19세기 당시 의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음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Charles Baudelaire는 *The Painter of Modern Life* (1863)에서 '댄디즘은 의상이나 재질의 우아함에 대한 무절제한 취향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숭배라고 할 수 있다... 댄디는 정치적 현상과 사회변화에 기인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댄디들 멋쟁이 (Exquisites), 댁시꾼 (Beaux) 또는 명사 (Lion) 중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것은 모두 동일한 뿌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모두 반대성향이나 반감이라는 동일한 특징을 공유한다... 댄디즘은 히로이즘의 마지막 광휘이다.' 그러나 19세기 남성복은 인간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나 양식 (attitude)에 의상을 걸치는 것이었다.

한편, 섭정시대 댄디들은 우아함 (elegance)이라는 댄디의 요소를 고수하면서도 눈에 띄는 현란한 스타일은 기피했다. 그들은 고급직물로써 완벽하게 재단한 의상으로 성장했으며 자신들은 하찮은 부르주아 세계와 세속적인 일상사를 초월한 부류라고 생각했다. 댄디 복장의 특징은 어깨에 게더잡은 프록코트 (frock coat) 또는 모닝코트 (morning coat), 패드넛은 가슴, 하이웨이트, 콜셋으로 졸라맨 허리, 거의 눈을 가릴 정도로 높이 맨 셔츠 칼라와 크라바트, 페그탑 트라우저즈 (peg-top trousers) 또는 브리치즈, 앞이 뾰족한 구두 그리고 탑헬 등이다 (그림 1). 그러나 섭정시대 댄디는 브럼멜의 스타일과 비교되기 보다는 톱이나 마카로니 (macaroni)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브럼멜은 완벽한 테일러링, 색상의 조화 그리고 악세서리를 생략한 단정하고 말쑥한 복장을 추구했으며 그의 침착하고 우아한 복장은 섭정시대 댄디와는 큰 차이가 있다. 부풀린 가슴 (puffed-out chests), 졸라맨 허리 (pinched-in waists) 그리고 등근 힘의 섭정시대 댄디의 로맨틱한 실루엣은 1820~1830년대



<그림 1> 섭정시대 맨디의 복장

의 아워클래스 형태의 전조가 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브럼멜의 단 하나의 계승자라고 인정받은 남자, Alfred, Count d'Orsay (그림 2)는 1845년 *New Monthly Magazine*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취향과 패션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고로 군림하는 취미의 권위자 (the arbiter elegantiarum)', 실제로 그는 그 이상이었다. 도르세 백작은 부르주아인 브럼멜에게는 전혀 없었던 로맨티시즘 (romanticism)을 갖고 있었다. 브럼멜이 늘 딱딱하게 버튼을 채운 모습으로 다녔던 데 비해서 도르세는 거의 항상 코트를 풀어헤쳐 뒤로 넘긴 자유로운 모습을 하였다. 브럼멜이 그의 독설로 인하여 거리낌 받았던 곳에서 도르세는 사랑받았다. Benjamin Disraeli는 그를 '가장 훌륭하고 친절한 남성'이라고 평했으며, Charles Dickens는 '패션의 세계에까지 젖통한 그의 마음을 손상없이 남겨 놓았다.'고 했다. P.R. Madden는 '도르세는 신사다운으로써 ... 품위 있게 조화된 남성의 강력한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발산하면서도... 여성의 천성인 부드러움이 조화되어 사람을 매료시킨다.'고 했다. 도르세의 화려한 외모 밑에는 분명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으며 여성을 끄는 그의 매력 뒤에는 안드로지니, 심지어 양성적 요소



<그림 2> Brummell의 계승자로 자타가 공인한 Count d'Or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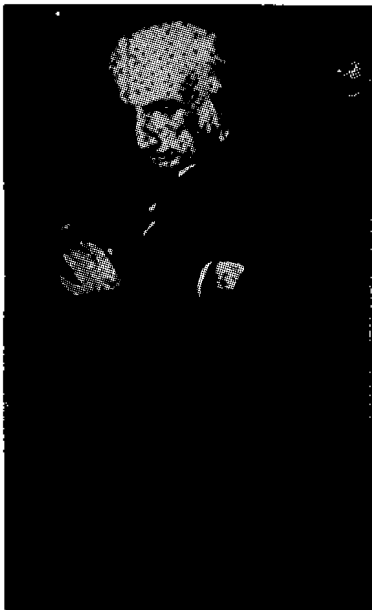
(bisexuality)가 잠재되어 있었다. 브럼멜은 만일 누가 머리를 돌릴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옷을 입었다면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던 반면, 도르세는 목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입지 않으면 언짢아 했다고 한다. (1) Jane Carlyle은 1839년 백작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여름 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처음 본 그의 미모는 선천적으로 '성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상한 인상이었다. 이러한 인상은 그의 복장에서 연유했는데 sky-blue satin cravat, 수 야드의 금체인, 흰 프랑스제 장갑, 밝은 갈색의 greatcoat는 동일 색상의 벨벳으로 라인을 들렀고, 마치 살색 장갑처럼 꼭 맞아 다리와 구분이 안 되는 바지... 그러나 그의 매너는 남성다웠다.' (2)

허리 아래는 감히 '언급할 수 없었던 (inexpressible)' 빅토리아안 시대가 시작될 무렵 아마추어 예술가이며 조각가였던 도르세 백작은 네오클래식 (neo-classical) 스타일의 네이키드 룩 (naked look)을 고수하고 있었다. 도르세는 격식에 얽매인 빅토리아 시

대의 딱딱한 남성이 되기 직전의 대담하고 현란한 색채를 주장했던 마지막 인물이었다. 1820~1830년대 컬러 의상을 고집했던 백작은 18세기 복장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했으며 1821년 이후 패션 리더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도르세 백작은 다수의 추종자를 만들지 못했으므로 그의 '컬러 의상 캠페인'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유명 인사들은 블랙 수트를 입기 시작했다. Charles Dickens, the Duke of Beaufort, 시인 Laureate와 William Wordsworth은 모두 데이타임 블랙 (daytime black)을 입었다 (그림 3). 1845년 도르세는 실패를 시인하고 자신도 블랙을 입기 시작했다. Jane Carlyle은 1845년 4월 13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오늘 Thomas Carlyle의 *Phylosophy of Clothes*를 탐독하고 있을 때 도르세 백작이 걸어들어왔다. 과거 그는 알록달록한 벌새 (humming bird)처럼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은 동성연애자 같았으나... 오늘은 블랙과 브라운으로 차려 입었다. - 블랙 새틴 크라바트, 브라운 벨벳 웨이스트코트, 웨이스트코트보다 더 진한 색 벨벳



<그림 3> 블랙수트 차림의 William Wordsworth

으로 라인 두른 브라운 코트, 블랙 트라우저즈, 작은 다이아몬드 컵모양에 큰 복숭아형 진주가 박혀 있는 breast-pin 한 개, 한 줄의 금체인이 목에 둘러져 있고... 아! 이제야 저 남자가 자신의 트레이드를 이해했구나; 그것이 덴디의 상징이라면 그가 덴디의 최고 거장이라는 것과 완벽한 기술로써 옷 입는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3) (*Carlyle, Jane Letters and Memorials, ...*)

당시 블랙 수트가 유행했으므로 컬러풀한 의상을 입은 남성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력하다고 판단되어졌다. 물론 기성세대들은 스킨 컬러드 트라우저즈 (skin-coloured trousers)를 고수했으나 신세대들은 그러한 의상의 구세대들을 경멸했다. 산업화 시기인 19세기 도시는 점차 매연으로 뒤덮힌 빌딩들과 함께 검어져 갔으며 따라서 도시에서 블랙 수트는 하나의 규칙이 되었다. 19세기 초 블랙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색채로 승격되었고 귀족들조차 증산층을 모방했으며 목사, 교사와 교수, 의사 그리고 법관같은 전문직종 의상에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었다. 1867년, Thomas Wright의 보고에 의하면 블랙은 도시 워킹 클래스들에게도 채택되고 있으며 나들이 옷 (Sunday best)으로서 블랙수트가 최적이 되었다고 한다. 색을 가진 유일한 아이템은 머플러 뿐이었다. (4) 19세기 도시에서 블랙 수트가 유행했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종교적인 이유로서, 일할 때 어두운 색상의 의상을 착용한다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Protestant Clothing Ethics at Work) 때문이다. 둘째, 실용적인 이유로서, 산업화된 도시의 오염과 더러움 때문에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 어울리는 진지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둡고 침착한 색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미학적인 이유로서, 다른 색상에는 없는 강력한 힘을 상징함과 동시에 어느 색보다 재단의 우수성 (well-cutting)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잉글리쉬 젠틀맨의 이미지 (The Images of English Gentlemen)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후에 따른 의복태도 등 평범하고 일상적인 요구들이 의복의 형태뿐 아니라 마

음상태까지도 영향을 미쳐 남성과 여성의 패션에 대한 반응을 구별짓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항상 최신 유행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주저하게 된다. 영국 컨트리 드레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견고한 울렌 라이딩 코트(woollen riding coat)이다. 그것은 강하고 질겨야 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이 코트의 기능에 적합해야 했기 때문에 클래식 의상 대열에 빨리 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최고 수준의 영국 테일러링 기술을 보여줄 수 있었다. 승마시 불편하지 않도록 된 낙낙한 코트의 스커트 자락과 몸에 맞게 재단된 허리, 그리고 하이 칼라가 달린 이 라이딩 코트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르맹고뜨(redingote)'가 되었다. 전혀 사치스럽지 않은 수수한 이 코트는 19세기의 포멀한 프록코트(frock coat)의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제 1차 대전 말까지 비즈니스 맨들이 애용하였다(그림 4). 잘 알려진 젠틀맨의 의상으로 까리끄(carrick)가 있다. 그것은 무거운 황갈색 직물로 된 길고 넉넉한 오버코트로서 몇 겹의 케이프 칼라가 달려 있다. 까리끄는 원래 마부가 마차 밖에서 말 탈 때 보온용으로 입었던 것이었으나, 18세기 후반부터 패

셔너블 아웃웨어로서 남성용 클록(cloak) 대신 입기 시작했다. 다양한 스타일의 까리끄가 19세기 후반까지 인기를 유지했다(그림 5).

잉글리쉬 젠틀맨의 또다른 이상형으로서 군인을 들 수 있다. 18세기 중반 군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이었으며 거기엔 군복에 대한 매력도 상당했다. 빨강, 파랑, 금색, 흰색과 검정색이 혼합된 화려한 군복과 은색 검과의 절묘한 조화만으로도 19세기 군인이 되면 댄디가 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그림 6). 군인의 눈에 띄게 화려한 외모와 절도있는 매너는 용기를 고무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인상적인 제복은 장교와 사병 모두에게 충성과 훈련의 정신적 바탕인 단결심(esprit de corp)과 동지애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다. 군인은 사회 규범 밖에 있는 이방인으로 규정되고 공개적으로 세시한 외모를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매혹시켰다. 따라서 군인의 복장은 남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이 분명하게 호모에로틱(homoerotic)하다는 점이다. Robert Dighton이 그린 19세기 기병장교의 그림은 둥근 엉덩이, 매끄러운 허벅지 그리고 잘록한 허리(wasp-waists)를 육감적으로 묘사한 거의 도색화(pornography)에 가



<그림 4> riding coat, riding boots, whip 차림의 잉글리쉬 젠틀맨



<그림 5> 혹독한 영국 기후에 적합했던 carrick



<그림 6> 군복 차림의 Napoleon : 군인은 또 하나의 젠틀맨의 이상형이었다.

잡다. 군인들은 너무 타이트해서 못입을 정도가 아니면 벅스킨(buckskins)을 사지 않았다는 우스개 소리는 유럽 각국의 장예부대의 제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The Whole Art of Dress*에 따르면 프랑스 제복이 특히 찬탄의 대상이었으며, 프랑스 제복을 칭찬하는 이유는 제복을 선택할 때 그들의 취향과 판단이 뛰어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모든 나라들은 점점 더 눈부시고, 화려하고, 유혹적인 군복을 만들기에 바빴다. 가슴에 패드대고, 허리는 잘록하게, 스킨타이트 브리치즈(skintight breeches)로 강조한 허벅지, 운나는 송아지 가죽 부츠, 거기에다 많은 장식-은색 장식띠, 금색 견장, 프링징(fringing), 파이핑(piping), 정교한 매듭장식, 벨벳 페이스(velvet facing), 프로깅(frogging), 레이싱, 실크 라펠, 특히 베어스킨(bearskin), 셰코우(shakoes), 문장이 새겨진 헬멧 등-을 했다.

2. 낭만주의와 기사도적 젠틀맨 (Romanticism and Chivalrous Gentlemen)

이미 1810년대부터 대륙에서 'romantic' 이란 말은 소설이나 시에 관계된 뜻이었으나, 영국에서 그 말

은 '야성적(wild)이고 환상적인(fantastic)'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1820년대 대중에 회자되었다. 지나치게 순수와 고귀한 것만을 추구하던 네오클래식은 진부한 것이 되었으며,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가 길들여지지 않은 감성의 시대(The Age of Untamed Emotions)로 대체되었다. 즉, 네오클래식 취향은 정반대 개념의 불규칙하고 거친 이극적 정서에 의해 추방되었다. 그것은 매우 남성적인 운동이었고 영웅적이며, 용감하고, 뜨거우며, 격렬하고, 에너지틱한 움직임이었다. 말쑥하고 단정한 것 그리고 질서정연한 것은 여성적 요소이며 따라서 이 새로운 운동은 남성적 추진력과 무분별한 열정을 찬양했다. 로만티시즘은 예절에 대한 규칙을 깨부수고 싶어했으며, 따라서 Lord Byron 같은 낭만주의 영웅은 바람에 휘몰린듯한 험클어진 스타일을 선호해서 크라바뜨 없이 칼라를 풀어 해치고 우아한 니브리치즈(kneebreeches)가 아닌 트라우져즈를 입었다. 낭만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예술적 무법자로 여기고 싶어했다. 한편, 낭만주의자들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Sir Walter Scott의 소설은 중세의 역사를 소개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의 시 *The Field of Waterloo*와 소설 *Ivanhoe*는 기사도를 유행시켰다. 중세와 기사(chivalry)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과거를 애호하는 역사소설(historical romance)들이 유행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낭만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서는 기사도적인 젠틀맨(chivalrous gentlemen)에 속하는 것이고 관용과 감정을 승화시키는 것 그리고 영웅적 행동은 세습 귀족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또 젠틀맨은 가능한 영웅적 이상형(heroic ideal)에 어울리는 차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들은 과학을 거부했고 과학자는 도덕을 가질 수 없다고 했으며 부상하는 중산층과 모더니티를 혐오했다. John, Duke of Rutland는 '부와 상업, 법률과 지식이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 아직 옛 귀족은 남아 있다.'고 노래했다. (5) 특히 기업가들은 결코 고상해질 수 없다고 했으며, 떠오르는 상업과 산업의 경영자들이 귀족들처럼 차려 입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들 귀족들을 괴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낭만주의 중세주의자(romantic medievalists)들은 유감스럽게도 현실세계와 직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사실 신중함과 정직은

산업사회의 필수 조건이며 귀족계급 젠틀맨들이 입는 바로 그 수트는 정직하고 예의바른 산업 중산층들로부터 생겨났다. 또 절제와 책임감의 개념 역시 중산층에서 싹트던 반면 귀족계급은 오랫동안 주정꾼, 바람둥이, 도박꾼이라는 악명을 지녀왔다. 중산계급인 부르주아 젠틀맨과 낭만주의 젠틀맨의 특징과 복장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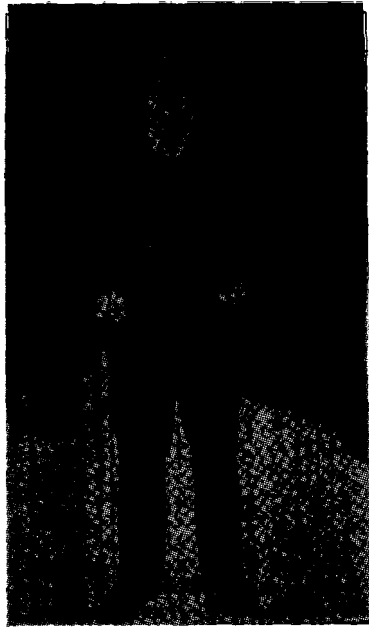
1760년대 이후 'skeleton suits'의 타이트한 살색 니브리치즈가 남성복을 선도했으나 1820년대부터 넓게 퍼지는 코트의 스커트 자락으로 되돌아 갔다. 즉 정숙함(modesty)을 중요시하여 트라우저즈를 'inexpressibles'이라 불렀던 빅토리아 시대는 하체의 율박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으며 네이키드 룩도 사라지게 되었다. 프록 코트는 하체를 가리기 위해 넓게 퍼졌다. 허리 근처에서부터 퍼져서 코트의 스커트가 무릎까지 내려왔고, 오버코트는 발목까지 내려오면서 19세기 남성들의 성적 부위(erogenous zone)인 다리를 은폐했다. 이러한 복장에 도르세의 넓은 라펠과 가는 허리가 더해져서 매우 여성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여성적인 실루엣은 여왕의 군림과 관계가 깊다. 정확하게 같은 현상이 바로 Elizabeth I의 통치 시기에도 있었는데, 남성들의 실루엣이 매우 곡선미를 나타내었으므로 착용자가 남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턱수염과 콧수염을 기를 정도였다. 남성복장의 곡선적인 요소는 다른 부분에도 있었는데, 말려 올라간 탐헬의 브림(brim)과 피존 브레스트(peigon breast) 효과를 가져오는 칼라와 라펠, 코트의 스커트, 구렛나루와 찢진 머리가 유행했다. 이제 남성에 대한 정의가 또 다시 변했다. 즉, 자신들을 의기양양한 남성으로 간주하던 정열적인 낭만시대 영웅이 물러간 뒤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으며 또

한 남성적인 로맨틱 룩에 대한 반동으로서 남성 룩은 '여성적인 곡선'으로 되돌아갔다.

코트도 점차로 다양해졌다. 친숙한 프록코트와 테일코트(tail coat)는 1830년대 말 테일리스코트(tailless coat) 또는 자켓과 합류되었고, 그 결과 허벅지 중간 길이가 되어 사방이 같은 길이로써 짐작케 속옷(unmentionable)부위를 가리게 되었다. 이것은 여전히 가는 허리에 넓은 라펠이고 다른 코트들처럼 스커트 밑단이 퍼지는 형태이기는 하나 보다 짧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 자켓은 낚시, 산책, 승마 시 입는 휴일의 인포멀 코트로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자켓들은 그 후 약 20년간 계속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허벅지 윗부분까지 짧아지고 잘룩하던 허리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라운지 수트(lounge suit)'가 되었다. 원래 라운지 수트는 컨트리 복장에 적합하며 도시에서는 입지 않았었다. 그러나 Bertie, Prince Albert Edward는 이 복장을 매우 좋아해서 지방에서나 외국여행 시 즐겨 입었고 이것이 라운지 수트를 유행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그림 7). 라운지 수트는 자켓의 버튼을 가슴까지 높이 잠그고 1850년대의 새로 등장한 턴다운 셔츠 칼라(turn-down shirts collar) 또는 기존의 풀머인 하이 칼라와 같이 입었다. 기성세대는 턴다운 칼라를 품위 없다고 여겨 하이칼라를 고집했으나 점차로 턴다운 칼라가 보급되었다. 칼라를 접어 늘어 뜨리는 것은 크라바뜨에 대한 큰 이변이었다. 턴다운 칼라는 크라바뜨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크라바뜨는 좁아지게 되고 결국은 타이(tie)로 축소되고 말았다. 남성복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의 하나인 크라바뜨는 덴디-특히 브림델-에 의해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드물기는 해도 오늘날에

<표 1> 중산계급인 부르주아 젠틀맨과 낭만주의 젠틀맨의 특징과 복장 비교

	Bourgeois Gentlement	Romantic Gentlemen
Charac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 근면, 성실, 책임감 확고 • 현실 존중 • 교육받고 부를 축적한 중산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기사도 정신 찬양(romantic medievalist), heroism 찬양 • 과학과 모더니티 부정, 중산층 기업가 경멸, 현실감 결여 • 중세 봉건제도와 Roman Catholicism으로의 복귀 주장 • 세습귀족
Atti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suits • Breeches or trousers • Crav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ose trousers • No cravat



<그림 7> 라운지 수트

도 크라바뜨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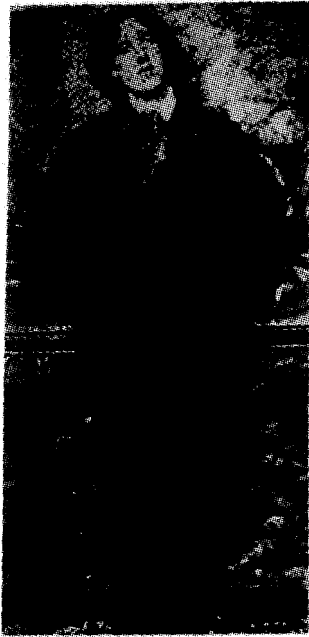
3. 근육적 기독교와 건강의복 (Muscular Christianity¹⁾ & Health Clothes)

1860년 경 스포츠 자켓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특정 색상을 가진 스포츠 클럽의 라운지 자켓을 단순화시킨 것이었다. 즉 처음에 스포츠 자켓은 한 가지 색상이었으나 1870년대 이르러 스포츠 클럽이 증가함에 따라 줄무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스포츠복이었으므로 평상시 도시에서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럭비와 조정클럽 같은 다른 스포츠 클럽에서도 이 스포츠 자켓을 채택하게 되었고 점차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제 이상적인 젠틀맨의 이미지가 낭만적인 기사도 (Romantic chivalry)에서 근육적 기독교 정신 (Muscular Christianity)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젠틀맨은 고상한 품격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되었으며 인격과 더불어 강건하고 균형잡혀야 했다. 도서관 스타일 특히, 시인은 여성스러우므로 젠틀맨은 기피해야 한다고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공립학교 교과에서 스포츠 윤리학

을 채택하게 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다시 말해서 운동기술과 함께 명예롭게 운동경기에 임하는 스포츠맨십을 강조할수록 문학이나 예술같은 정신적 활동을 점점 경멸하게 되었다. 지식을 쌓고 세련되어지고 문명화 되는 것은 남성성을 여성화 시키는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비난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후에 오스카 와일드의 스킨들에서도 증명되었다. 따라서 젠틀맨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상식은 가지되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단순한 남성이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공립학교의 이상형은 크리켓 (cricket) 게임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며, 도전적인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고 무자비한 산업 경쟁사회에 끼어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편견에 가득 찬 태도는 이후 영국인들을 사로잡게 되었다. 당시 유행하던 잘룩한 허리의 코트와 패드덴 조끼 그리고 탐험까지 유선형을 이루던 모든 의상들은 당시 만연해 있던 운동애호열 (athleticism)에 기인하였으며, 이것은 거의 19세기 중반 이후 상류층 남성들의 필수적인 복장이 되었다.

한편, 많은 예술가와 문인들이 1850년대 이후 일어난 의상개혁에 참여하였다. 1880년대 말과 1890년대 대의 유타주의자들과 라파엘 전파 (the Pre-Raphaelite)의 추종자들은 험령한 여성복과 레이스 장식이 많은 중세나 바로크의 역사적인 남성복 스타일을 선호했다. 1881년 The Rational Dress Society가 설립되었으며, 1884년 Oscar Wilde는 남성 의상개혁을 주제로 한 글에서 설정시대 의상이 리바이벌 되어야 하되 그것은 너무 타이트하므로 Cavalier (Charles I 시대) 특인 챙 넓은 모자와 클록 (cloak) 그리고 험령한 니브리치즈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일드는 트라우저즈를 '따분한 튜브 (boring tubes)'라고 비난하면서 니브리치즈를 권장했고, 1893년 Punch지는 니브리치즈를 지식인의 표식이라고 풍자했다 (그림 8). 니브리치즈의 또다른 옹호자는 Stuttgart 대학의 Dr. Gustav Jaeger로서, 1878년 위생 모직 의류 연구소 (Sanitary Wollen System)를 설립했다. 그의 주장은 바지와 양말 그리고 셔스펜더를 겹쳐 입는 것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겹쳐 입지 말고 니브리치즈와 스타킹을 입음으로써 사지에 풀고루 영양분을 공급시

1) 강건한 육체와 쾌활한 정신을 숭상하는 사상.



<그림 8> 니브리치즈 차림의 Oscar Wild : 그는 트라우저즈를 '따분한 튜브'라고 비난하면서 니브리치즈를 옹호했다.

켜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권장하는 유일한 직물은 울이며 면이나 마같은 식물성 섬유는 피부호흡을 방해한다고 했다. 또 울내의를 밑에 입으면 보온성과 발汗을 도와주고 피부를 자극하여 혈행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 죽은 표피를 탈락시켜 피부의 자정작용을 도와 준다고 했다. 코트는 double-breasted여야 하는데 이는 모든 혈관이 갈라져 나가는 흉부를 보호하기 위함인 동시에, 더운 날씨에 발汗으로 인한 체중감소를 막아 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웨이스트 코트는 필요없는 대신 코트 밑에 메리야스 직조의 모직 셔츠를 입어야 하며 모직 칼라와 크라바트는 가슴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모자에서 양발까지 모든 의복은 순모 (pure wool)여야 하고, 모든 테이웨어는 백색 또는 천연 브라운색의 원모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단, 염료는 인디고 (indigo)와 코치닐 (cochineal)만을 허용했다. 예거의 이 같은 주장은 독일,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영국같은 비교적 혹독한 기후의 나라들의 지식층에게 진지하게 수용되어졌다. (6) 1883년 런던의 사업가 Lewis Tomalin은 예거 의복의 특허를 얻어 London Regent Street에

예거 스푼을 열었다. 예거의 올렌 의상의 열렬한 팬이었던 Bernard Show는 프록코트와 탑헬 일색이던 런던 중상가에 염색 안된 올렌 니코보코즈 수트를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건강·예술 의상 단체 (Health and Artistic Dress Union)의 회원이었으며, 바지보다 편하고 아름다운 니브리치즈로 돌아가자는 오스카 와일드를 지지하는 글을 실기도 했다. 올렌 니코보코즈 수트 운동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도시에서 트라우저즈를 와해시키는 데 실패하게 된다. 물론 지방에서는 니코보코즈가 이미 애용되어 오고 있었으나 도시에서는 트라우저즈가 단순하고 덜 복잡했을 뿐 아니라 비클과 단추가 없어서 간편했으므로 대다수 남성들이 트라우저즈를 선호했다.

잉글리쉬 젠블맨의 차림을 특징지우는 중요한 의류품목으로서 탑헬과 우산이 있다. 탑헬을 쓴 신사가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의 의상 또한 중후하다. 어느 익살꾼은 영국 신사는 뛰는 것 같은 품위 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탑헬이 그들에게 알맞다고 했다. 탑헬은 중세의 뽀랭느 (poulain)와 마찬가지로 지위를 상징하는 의복은 비실용적이고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말해서 뽀랭느와 탑헬의 불가항력적인 매력의 원천은 바로 '비실용성'에 있는데 그것은 농부나 노동계급같은 하류층은 착용할 수 없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배타성과 속물근성이 바로 모든 하이패션 트렌드의 속성이다. 불편하고 불안정하며 착용해서 쾌적하지 않은 탑헬의 기능은 오직 하나, 착용자를 무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외적인 위엄을 부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탑헬은 움직임을 둔하게 하고 행동에 엄숙함의 가치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남성들의 머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 근위병의 모자 (bearskin)나 기병장교의 군모 (shako)처럼 탑헬은 자동적으로 존경을 얻었으며, 비록 군모와 같은 외형적인 열정은 결여되었으나 다른 의상 아이템들처럼 19세기 남성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원래 여성의 의류품목인 파라솔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우산은 많은 투쟁 끝에 신사의 의류에 들어왔다. 1760년대 짙은 방수 (oil-cloth) 우산이 처음 나와 소수의 남성들만이 이것을 들었을 때 괴상

<표 2> 이상적인 젠틀맨의 이미지 변화

Periods	Characters of periods	Ideals of gentlemen	Arbiter
1800~1810	• Neo-classicism	• Dandy • Naked look(skeleton suit) : skintight (riding) breeches, tail frock coat	George Brummell
1811~1820 (Regency)	• Neo-classicism	• Regency dandy look: pouter-pejion breast, highcollar & cravat, corseted waist, tight breeches & stockings	George Brummell
1820~1830	• Romanticism • Medieval chivalry & heroism	• Romantic chivalry look • d'Orsay의 color campaign	Lord Byron Count d'Orsay
1830년대 이후	• Queen Victoria의 통치	• Romantic hourglass line : regency dandy look의 발전형, feminine line, 곡선적 실루엣, black suits의 정착	Count d'Orsay
1860년대 이후	• Athleticism	• Muscular Christianity style: sports jacket의 출현	Prince Albert
1880년대 이후	• Dress Reform Movement	• Aesthetic Dress : kneebreeches, lounge jacket	Oscar Wilde Prince Albert

하고 여성같다는 비난을 들었다. 젠틀맨은 원래 우산이 아닌 승마용 채찍이나 단장(cane)을 가지고 다녔으나 1800년 경 복장이 보다 자유로와지게 되자 인크로이어블(Incroyables)과 군대, 특히 근위대에서 우천시 우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시에서 군복 차림일 때는 이를 금지하였으므로 그들은 평상복을 입고 우산을 소지하였다. 특히 근위대에 복무했던 Edward VIII는 평상복일 때 프록코트와 탑햇 그리고 타이트하게 접은 우산을 갖고 다녔다. 그 밖의 다른 왕자들과 왕족들도 근위대에 복무하였고 이들은 평상복 차림일 때 필수품이던 승마용 채찍 대신 우산을 갖고 다니던 것이 우산을 유행시키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세기 동안 이상적인 젠틀맨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시대와 시대적 특징 그리고 젠틀맨의 이상형 등이 오버랩될 수 있다.)

III. 결 론

19세기는 현대 남성복의 기본요소인 black suits, jacket과 바지, 그리고 turn down collar와 tie가 정착되

는 시기이며, 당시 프랑스가 여성복을 선도했던 반면 남성복의 중심지는 영국이었다. 19세기 초는 Neo-classicism의 영향을 받은 naked look으로서 신체 골격을 드러내는 skeleton suits가 유행했으며, Brummell과 그를 계승한 d'Orsay 백작이 유행을 선도했다. 덴디의 대명사인 Brummell은 완벽한 테일러링과 색상의 조화 그리고 장신구를 생략한 단정하고 말쑥한 옷차림을 추구했던 한편, Brummell의 계승자로 인정된 d'Orsay 백작의 color campaign은 당시 블랙수트의 유행으로 인해 결국 좌절되었다. 19세기 블랙은 남성복에서 지배적인 색채가 되었으며, 블랙수트는 종교적, 실용적 그리고 미적인 이유에서 널리 보급되었다.

1820~1830년대는 낭만주의 파급에 영향을 받아 중세의 '기사도적인 젠틀맨'이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부각되고, 낭만주의 영웅인 Byron경의 자유분방하고 야성적인 패션이 잠시 유행했다. 이 때 새로이 부상하기 시작한 신혼 부부류아 계급은 교육받고 부를 축적한 중산층으로서 현실적인 이들은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블랙수트를 선호했다. 이들의 급부상은 기존의 귀족 젠틀맨 그룹과 미묘한 갈등을 빚으면서 점차 자신들만의 독특한 '부부류아 패션'을 정착시키

게 되었고 후에 귀족계급도 이들의 패션을 점차 수용하게 되었다.

High Victorian시기인 19세기 중반은, 'Regency Dandy Look'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매우 곡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여성적인 hourglass line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Victoria 여왕의 통치와 관계 깊을 뿐 아니라 남성적인 Romantic look에 대한 반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특히 modesty를 중요시 하여 하체의 윤곽을 드러내는 skeleton suits가 쇠퇴하고 헐렁한 트라우저즈의 'black lounge suits'가 정착되는 시기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운동애호주의 (athleticism)'의 열광으로 인해 남성복 라인이 유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근육적 기독교 (Muscular Christianity)'가 젠틀맨의 이상형이 된 데 기인한다. 즉, 고상한 품격과 더불어 강건하고 균형잡힌 육체, 그리고 스포츠맨십이 숭상되었다. 단순하고 독실한 기독교도는 도전적인 사상이나 산업 경쟁사회를 기피하고 문학, 예술 등의 정신활동을 경멸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종다양한 스포츠 웨어가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정신은 뒤이은 '의상개혁'과 '건강의복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이제 테일러링의 우수성이 남성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오늘날 같은 장신구를 배제한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정착되는 기반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19세기는 현대 남성복의 확립 시기로서, 잉글리쉬 젠틀맨 복장의 기본요소를 바탕으로 한 전통 남성복 스타일에 실용적이며 기능적이고 위생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결국 오늘날의 기본형태를 확립시키게 된 것이다.

검색어 : 잉글리쉬 젠틀맨, 낭만주의, 근육적 기독교, 섭정시대 댄디, 건강의복.

참고문헌

1. McDowell, Colin. *The Man of Fashion*, Thames & Hudson, p.74, 1997.
2. Connely, William. Count d'Orsay, *The Dandy of Dandies*, Cassell, Passim, 1952.
3. Marly, Diana. *Fashion for Men*, B.T. Batsford, p.90, 1996.
4. Wright, Thomas. *The Habits & Customs of the Working Classes, by a Journeyman Engineer*, Tinsley Bros, pp.69-71, 1867.
5. Manners, John. *Duke of Rutland, England's Trust*, J. G & J. Rivington, p.24. 1841.
6. Mary Newton, Stella. *Health, Art and Reason, Dress Reformers of the 19th Century*, John Murry, 1974.
7. Rouse, Elizabeth. *Understanding Fashion*, Black Science, 1999.
8. Lehnert, Gertrud. *Fashion ; A concise history*, Laurence King, 1999.
9. Eui Jung, Lee and Sook Hi, Yang. *Fetishism*, Kyungchunsa, 1998.
10. Laver, James. *Costume & Fashion*, Thames & Hudson, 1996.
11. Breward, Christopher.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12. Buck, Anne. *Victorian Costume*, Ruth Bean Carlton Bedford, 1984.
13. Callen, Georgina O'Hara.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Thames & Hudson, 1998.
14. Cassin-Scott, Jack. *Costume and Fashion*, Brockhampton Press, 1997.
15. Crowley, David. *Victorian Style*, Eagle Editions, 1998.
16. Ginsburg, Madeleine. *Victorian Dress in Photographs*, B. T. Batsford, 1982.
17. Ginsburg, Madeleine. Hart and Mendes.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V&A Publication, 1999.
18. Mackrell, Alice. *An Illustrated History of Fashion*, B.T. Batsford, 1997.
19. Thesander, Marianne. *The Feminine Ideal*. Reaktion Book, 1997.
20. Roetzel, Bernhard. *Gentlemen: A Timeless Fashion*, Könemann, 1999.